

# Goyang

고품격의 문화예술

## 우리 동네에서 즐거요

1 정발산동 그림이야기 전경  
2 정발산동 그림이야기 내부



그동안 그림, 음악, 공예 등을 멀리 나가서 접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마을단위문화거점사업'을 즐겨보자. 고양시 5개 마을에서 주민이 예술가가 되고 누구나 관객이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시작된다.

글/사진 이민숙(고양시 소설기자단), 최응석(전문위원)

지난해 4곳의 마을에서 운영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동네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가 올가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돼 주민들 속으로 찾아올 준비를 마쳤다

정발산동, 설문동, 주엽동, 화정동, 주교동 총 5개의 마을에 문화 거점과 문화기획자를 선정하고 각 마을의 특성을 살려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그중 청년작가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정발산동의 미술학원 '그림이야기'와 설문동 칼 빌리지의 문화공간 '평아트'를 소개한다.

### 1 그림과 시 음악이 있는 문화예술축제 정발산동, '그림이야기'



자폐 화가 김범진, 청년작가 한승욱 등을 배출한 이재연 원장이 운영하는 그림이야기는 학원이자 예비 예술가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다. 3년 전부터는 30인의 작가가 참여해 한 권의 그림책을 완성하는 시가 있는 그림이야기를 진행해오고 있다.

윤동주에 이어 올해는 김소월의 시를 주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윤동주의 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림으로 완성해

출간한 책 '새로운 길'의 경우 출판사의 제안으로 정식 도서로 출간되기도 했다.

### 2 문화가 한가득 담겨있는 곳 설문동, '평아트'



설문동의 경우 현재 약 10여 명의 예술가가 정착해 생활하고 있으며 공예작가 등이 정착 준비를 하는 등 작은 문화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그중 조각가이자 아트 액자 제작자인 한성수 대표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해 완성한 복합문화공간 평아트가 문화 거점이 됐다. 컨테이너 형태의 검은색 건물로 1층은 아트 액자 제작, 2층은 카페 겸 문화공간, 3층은 전시공간으로 구성돼있다. 평아트에서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전시회와 오페라, 한가람 합창단의 송년음악회, 명품 클래식 공연 등 하우스 음악회가 개최됐다.

그 밖에 주엽동은 주엽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주엽역의 지하 보도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예정돼 있고, 화정동은 화정역에는 언플러그드 어쿠스틱 공연을 기획 중이다. 또한 주교동 청소년카페, 빛과 소금 교회와 작은도서관까지 여러 곳에서 문화예술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문화예술과(031-8075-3417)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 곳곳의 예술가들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주민들이 예술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동네 예술가들과 함께 경계를 허물며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예술을 즐겨보자.



설문동의 경우 현재 약 10여 명의 예술가가 정착해 생활하고 있으며 공예작가 등이 정착 준비를 하는 등 작은 문화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1 설문동 평아트 전경  
2 설문동평아트 내부  
3 주엽동 주엽커뮤니티센터

# Enjoy